

“견제·감시 강화...지방의회 전문성 강화하겠다”

2023 세에 설계

고경애 서구의회 의장

“본연의 역할인 지역민과의 소통과 집행부 견제·감시를 충실히 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경애 광주 서구의회 의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지방분권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지난 한 해를 돌아켜 보면 취임난과 경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각종 정쟁으로 국론이 분열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며 “코로나19와 이상기후 등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긴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만큼 크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더욱 단단한 각오와 책임

지역사회 발전·주민생활 안정

‘안전한 사회’ 조성 제도 보완

풍암호수 등 현안사업도 집중

감으로 위기를 이겨내겠다”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강조한 고 의장은 올해 ▲상생 정치 ▲안전한 사회 조성 ▲지역 현안사업 해결방안 모색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먼저 고 의장은 주민들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

해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뜻과 생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을 위해 더 뛰고, 주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기울이겠다”며 “많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복합쇼핑몰의 유치 소식은 반가우면서 그 그림자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시름이 드리웠다.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자생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강화한다.

고 의장은 “주민의 뜻이 실현되는 협업과 협치의 정치를 이뤄내고 구정 운영 전반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근로자가 희생했던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잇따른 대형 참사로 주민들에게 내

재된 우려와 불안감이 발현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집행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에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마복동 공군탄약고 이전 등 서구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의정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고 의장은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풍암호수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수질을 개선해 지금처럼 주민들이 산책, 운동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노후 시설물로 인한 주민안전 문제, 안보상 문제 등 마복동 공군 탄약고 이전 문제는 주민들의 70년 숙원사업이다”며 “여러 입장이 있는 만큼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설 선물 구입 목적 19일 오후 광주 서구청에서 열린 '2023 전통시장 설 명절 선물용품 대전'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고경애 서구의회 의장, 서구 공직자들이 관내 전통시장과 연계해 견어물, 과일 등 선물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설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의료·물가대책반·콜센터 운영

광주시 서구는 설 연휴를 대비해 지역 주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4일까지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코로나19 방역 ▲선별진료소 및 응급진료체계 운영 ▲물가관리 ▲깨끗한 환경조성 ▲365민원봉사실 운영 등 주민 생

활과 직결된 3개 분야 12개 항목 38개 과제에 대해 명절 연휴기간에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됐다.

먼저 설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의료대책반을 정상 운영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응급환자 발생 등 의료상황에 적극 대응하며 물가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점포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성수품 가격조사 결과 비교공표,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지역 물

가 안정 및 유통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특히 설 전후로 주요 도심지역과 정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청결활동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연휴 중에는 환경미화원 특별근무와 더불어 노면 청소자 운행구간을 확대해 주민과 귀성객이 청결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구는 명절 연휴 동안 무인민원발급기 18대와 365민원봉사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의료, 재난, 청소, 교통분야 등 10개 상황반에 총 126명의 직원을 투입해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혜린 기자

지하수 이용부담금 한시적 '50% 감면'

1일 100톤 미만 신고시설 대상

광주시 서구는 주민들의 수도물 사용을 줄이고 대체수원인 지하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가뭄상황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서구에 등록된 1일 100톤 미만 지하수 사용 신고시설이 기준치를 준수해 사용할 경우 이용부담금을 감면한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자원 고갈 및 지반 침하, 싱크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사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신고

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구 관계자는 “지하수 사용 장려 목적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감면을 시행하면서 지하수 고갈에 따른 부수적인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감면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지속되는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청사 물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해 청사 내 ▲수도 밸브 조절 ▲절수형 수전 교체 ▲배관 누수 여부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물 절약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김혜린 기자

무인 민원발급기 17개소 추가 운영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광주시 서구는 언택트 행정의 중요성이 날이 커짐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17개소 추가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구는 기존 서구청 및 시청 민원실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19개소로 전면 확대했다.

이번에 서비스가 추가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과 서구청이 위치한 농성2동, 금호2동을 제외한 16개 동 행정복지센터이다. 이번에 제외된 금호2동 무인민원발급기는 보완조건을 완벽히 올해 다시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 확대는 공공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중 CCTV, 옥외부스, 경보장치 등 보안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 행정처의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올해에는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비스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서구 관내 공공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20개소 모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확대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현재 총 3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air purifier DK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